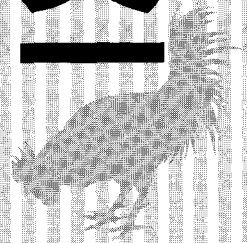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세계

가금 성장을 타 가축에 비해 두배

세계식량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금육의 성장률이 소, 돼지 등 타 가축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육은 1900~1998년까지 6%의 성장을 보인데 반해 지난해에만 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세계 육류 생산량중 가금육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에 23%에서 지난해 2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금 생산량중 절반 정도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가금소비량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7.1kg, 선진국의 경우 23.1kg으로 발표되었는데 올해는 7.2kg, 23.7kg으로 예상하였다.

참고적으로 세계육류생산량은 전체 227백만톤으로 축종별로 보면 가금육 63.7백만톤, 돼지고기 89.1백만톤, 쇠고기 58.7백만톤, 양과 염소고기 11.5백만톤, 기타고기 4.1백만톤이다.(PI)

일본

난가폭락 비상사태 선언

내년도 일본의 난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심상치 않은 예견이 나오면서 일본 양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난가폭락 비상사태'를 선언한 일본 계란협회에 따르면 금년 1~7월까지 산란계입식 현황이 지난해보다 4.7%로 기록되면서 이 물량이 집중 생산되는 내년 2월부터는 과잉생산에 따른 난가폭락은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유지하면서 생산억제를 해줄 것을 골자로하는 팜플렛을 제작, 전국 양계농가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 입식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계란 kg당 120엔에 달하는 가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채란산업이 호황을 맞은데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난가안정화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150억원(15억엔)을 책정, 계란가격안정 자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란산업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鶏鳴新聞)

말레이시아

10년후의 양계산업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금년도 말레이시아의 양계산업은 침체기를 맞이하였지만 향후 10년 후의 양계산업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가금육의 자급율은 128.4%, 계란은 113.9%로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육용종계장은 24개사가 있으며, 2개사에서 생산되는 물량만 해도 63%가 넘는다. 나머지 물량은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란종계장은 11개사가 있으며, 종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WP)

표. 10년후의 말레이시아의 양계산물 수급 동향

연 도		1995	2000	2005	2010
가 금	생산량(천톤)	687.4	1,040.0	1,166.1	1,340.5
	소비량(kg/인/년)	30.0	35.3	39.9	36.8
	자급율(%)	100.7	126.6	125.6	128.4
계 란	생산량(천톤)	374.9	440.4	498.7	560.0
	소비량(kg/인/년)	16.4	16.8	17.2	17.3
	자급율(%)	110.3	113.0	112.2	113.9

태 국

금년도 닭고기 생산량 큰폭 증가

금년도 태국의 닭고기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962,000톤을 기록하면서 세계랭킹 9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유럽 등을 겨냥한 수출 정책이 확대되면서 닭고기 수출은 전체생산량의 28%인 270,000톤으로 수출국중 5위

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현재 싼 노동자 임금을 바탕으로, 현대화된 시설에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태국의 양계산업은 지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년 5%이상의 성장율을 보일 정도로 산업이 급 성장하고 있다. 단 금년 하반기로 오면서 수출이 주춤하면서 지난해 보다는 수출물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IMF 이전 상태로 회복되면서 앞으로 육계산업을 밝게해주고 있다.(PI)

표. 태국의 육계산업 현황(천톤)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량	798	866	883	917	962
수출량	169	192	275	274	270
소비량(kg/인)	11.2	11.8	10.8	11.0	11.4

미 국

2001 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 개최

2001 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가 오는 2001년 1월 17~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지아주 월드콘그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53회째를 맞게될 이번 박람회는 전세계에서 가금 분야를 총 망라하여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6,000여 부스에서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게 되는 대규모 박람회로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양계박람회와 비교할때 15배 이상이나 큰 규모로 치러지게 된다. 관련 행사로는 가금학술세미나(1/15~6), 대학생 취업프로그램(1/17~19), HACCP적용 워크샵(1/20~21), 양계산업 연수(1/21~25) 등이 있을 예정이다.(WP)